

“제주 본향당 이야기”

-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 신화 -

1. 채록대상자 : 강복녀/심방
2. 채록일자 : 2017.05.18

가. 천자또 본

여자만 매는 당인디 예, 그때에 남자어른이 저 당을 매어나서 마썸.

경하난 그 시국에 이제 마을에서들 당을 부껴부니까 당 맨 심방이 자기가 아니노랜 해 낸 도망쳐뵈서마썸.

경하난 불은 오란 알각 다 부껴부난 천조할아버님은 지금 같으면 우리 텔레비전 보면 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옷들 쇠옷 예, 그거 다 입고 이만큼 한 쇠장화에 이거 받도 다 매고.

백주아기씨는 머리가 이만큼 해 그네 막 돌래 해 그네, 머리가 굉장히 커났젠 합디다 게. 경 해 본메를 다 부껴부러서 마썸. 경하난 본메는 아무것도 어썸다. 아무것도 어선 우린 글로 써뵈 예. 우린 글로써 뵈 햄썸다.

계난 천조할아버님은 초담에 솟아날 적에는 할로영산 중허리에서 솟아날 적에 한산 모시 진 창옷에, 청색도폭을 입고 능무망긴, 능무망긴이엔 한 것은 그거우다. 옛 어른들 망건 쓰지 않습니까 망건하고 갓 예. 계난 능무망긴에, 청 갓대에. 능무망긴은 썸 곱에 쓰는 거고, 청갓대는 위에 쓰는 거 아니파 예. 그거하고.

경해서 아늑?득 금책에, 종이 금붓대에 일천장에 베릿도에 삼천장에 먹을 갈아, 낱은 낱은 생산을 받고 읍사무소 가면 우리가 얘기를 나면 호적 올리지 았우까,

나는 낱은 생산을 받고, 죽는 낱은 물고를 돌아, 장적문서 호적문서를 걸어그네, 인물은 토생적을 차지하던 천조 하르바님입네다. 천조할아버님 본은 간단하우다.

나. 백주또 본

백주아기씨는 서울남산 백옥산, 7는 데왓 서데왓 백물내왓디서 솟아나난, 이미 임정국 따님얘기. 흐 일곱 살 나난, 아방 눈에 싯지나고 어멍눈에 골리나난 이젠 나가렌 내썸아 부러서양.

내썸아 부난 어딜 갔느냐 하난 요왕 외삼촌을 좇앙 들어간거라 마썸. 외삼촌 좇앙 들어가난 외삼촌 하는말은 니가 어째서 여길 왔느냐 하나네, 사실 여카여카 해 그 말을 다 곱은거라 예.

아버지 눈에 씻지나고 어머니 눈에 콜리나네 나가렌 하난 외삼촌 찾앙 오랏수다 하난,

그리 허거들랑 놀랑 할로영산 중허리에 가면 외할아버님 있으니까 외할아버님신디 강 베릿물을 떠 놔그녕, 할아버님 시주를 들렌 훈거라예. 시주를 들렌 하난 그 외삼촌이 당상성 별모작에 은풍채를 내어준거우다.

헨 그걸 가져 아저네 명동일 올라서난, 외하르방 찾아가젠 명동이광 세화광 평대 사이가 구린질이엔 허연 명동이우다. 명동일 올라서난 막 피리 부는 소리가 나난 그디 간 동산에 간 앓아네 한숨을 쉬하게 셋바람을 쉬언, 지치 난 그디 간 아장 쉬어넨, 한번 나도 피리를 빌려주면 안되크넨 하난,

이제 명동소천국이 흐는 말이, 여자는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인디 어떤 여자가 그걸 빌리렌 햄시니 막 야단을 친거라 마썸. 야단을 치난 부술을 부려베십주.

백주아기씨는 그 은풍채를 내난, 동더레 서러레 한번 푸꺼부난, 안개가 복삭 지난 천지가 캄캄할거 아니파.

아이고 잘못했수다, 주네 피리를 빌려주쿠매 부술을 걷어달라 하난, 영 푸끄난에 안개가 짝 건언.

마을 갔수게. 빌려줘서.

빌려주난 한 숨을 쉬어서 어드레 가는 아가씨가 되느냐 하난

나는 이제 외하르바님 좇아아전 올라가는 질에, 외하르바님 이름이 뭐넨 하난 천조하르바님이렌 하난

그럼 천조하르바님 사는 집을 가르쳐주켄 하는거라 마썸.

명동 소천국이. 그 명동 소천국은 그 뭐주. 사냥하는 사냥덜 해다 그녕 갈람바지 갈람저고리 입어그녕 무신 감태 이만한 모자 옛날 털 감태

이만이 한 그거 쓰고 해 그네

마살총 둘러매곡 거느리곡 해, 그네 주치(뽕)사농 매사농, 뽕사농 땡기고, 쉼도 잡아불고 말도 잡아불곡하는 놈들이라 마썸.

아니 겐디 이제 빨리 가그네 옷을 갈아입영 오라그네 외하르바님 사는델 강 7르쳐주맨. 아니 간 기다리느렌 하난 오란 걸랜 해네

어디냐 하난 요디엔.

간보난 한 발은 방 안터래 이 다리를 한 발은 들여놓고, 한발은 내놓으난 말 팡 쇠팡이 왕상한거 아니파.

아이고 그게 이제 깜짝 놀란 물도둑 놈 쇠도둑 놈이로구나. 경 보니까 저게 천조하르바님이엔. 그 옷을 문딱 벗영 곱져뒀네 흰 창옷을 입언 앓은 거라 마썸. 천조하르바님 추룩 해연. 경 허난 나오란 이젠, 그게 이제 어딜 가렌 헨 천조하르바님 찾앙 올라간거라 마썸.

올라강보난 벌써 천조하르바님은 상서화리레 내려와분거라. 내려오난 하르바님 앓아난 자린 가 보니까 무쇠방석 무쇠방석에 하르바님 해난 행장이 다 있는거라마썸.

계난 그걸 봐 아저네 그대로 내려오난 어디로 가렌 하난 올라가다 보민 송당광 세

화 사이에 '손드랑마르' 엔 합니다. 거기 엔 고라 손드랑마르. 그디가 큰 왕석 돌이 굉장히 이 집만한 돌이 있어서 마썸. 경허민 그 돌에 아자그네 하르바님이 오랑 제의를 받아아져 그네, 삼제의를 받았 갈 때마다 나가 어딜가리 해 그넝 그디서 셋바람을 쉬 하게 한숨을 쉬어마썸.

영 허곡 그디 찾앙오란 보난 하르바님은 그디 있던거라 마썸. '손드랑마르'로 해네 '돈두르' 땅으로 간거라 마썸.

돈두르 땅이엔 한 겐 또 손드랑마르는 질 곱디나네 좀 어숙한 길로. 사람 갔다왔다 안하는 길로 간거라 마썸. 돈두르 땅을. 돈두르 땅을 가넨. 이젠 그딜 가고. 옛날엔 손드랑마르로 고운 옷 입은 사람은 글로 못넘어갔수다.

말 탕 넘어가난도 딱 말을 세워사. 말을 끌고가고 옷도 한복을 입영 가젠하민 거기서 절 해똥 가곡 예.

경 해사 그디가 막 신력이 세여노난. 마음대로 넘어가지 못했. 하르바님신디 어떻게 오니까 너 위로 동경내가 남니.

조근조근 그 말을 외하르바님신디 곱앗썬게. 천조하르바님신디. 여카여카 행 저 돈두르 땅을 들어서니까 말도둑 쇠도둑놈이 하르바님 사는데 가르쳐주켤 해그네 가보난 하르바님이 아니고 그 말도둑 쇠도둑놈이언.

경허난 하르바님은 이놈의 새끼덜 나 불 쏘아넨 한 것은 옛날에 저 선생네 그거 알까 역새 있수게 역새, 화심양 화심 감아그넝 불 붙이지 았했썬가 담뱃불양.

게난 그걸 허켤 하르바님신디 강 그거라도 해여 그네 시주들어 그네, 얻어먹쿠덴 해도 필요없던 한 걸 내쳐분 생이라 마썸. 경 허 놈이 나 불 쏘안도 못한 놈이 나 자손 오라가니까 행패부렸젠

이젠 평대광 세화 사이에는 물 갈르라 땅 갈르라. 패 꽃아라. 경허난 세화사람도 평대 결혼을 못허고 예, 평대사람도 세화에 결혼을 못해 났젠 합니다. 패 꼽앙 못 오게, 사돈을 못하게. 이제는 다 햄수다마는, 옛날에 경 허렌 하곡. 이제 그 백주애기씨는 그거고 예.

다. 금상님본

금상 한집은 아양동축서 솟아나서 마썸, 날로 일어 금상이우다, 달로 일어 금상이우다. 아방 무유 어멍 무유 솟아나난, 훈 일곱 살 나난 울이 크고 넢이 큰 막장수가 된 거라 마썸 게난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가 뉘어. 막 장수가 되난 작패를 한 겁주, 돌아 땡기명.

한 일곱 살 난 애기업개는 땡기단 야 이 미혹한 재장수. 재장수를 잡아불젠 무쇠성을 둘러놓고 그디 무쇠방석을 깔아놓고 무쇠솔각 무쇠솔각지도 난 무쇠 물미를 부렘젠 곱아분거 아니파

금상한집은 그게 이제 뒤꼭지에 비늘 설서리 거스려네, 삼천명이 제 군서 사천명이

오천명 육천명 칠천 팔천명 억만 맨 제 군서를 거느리고 역광대 빛광대 초롱광대 꺾
채광대를 거느려 아장, 막 창빛 불빛 막 히롱하게 어디로 가냐 하난, 제주도로 피난
처로 들어와서 마썸.

제주 들어오난 저기에 사라봉을 근당하난, 삼천 선비들이 바둑장기 두어 장기 두시
다가 영 비려 보난 목 벤 재장수가 오람서.

아이고 목 벤 재장수가 우리 국을 망허레 오람져. 입심으로 불어부난 푸 하게 불어
부난 어드레 가릴하난 소섬 진질각을 들어선 거라마썸, 소섬 진질각을 들어사서 오조
리 당마루로 들어오란, 이제 큰 와양 천제집을 둘러봤고 작은 와양 흑제집을 둘러봤
고, 멀미오름은 세 안상을 둘러받안 마썸,

경 행 상서화리 이 '돈두르땅'을 천조하르바님을 찾아 온거라 마썸. 찾아오나네 천
조하르바님은 하는 말이 느 어디서 온 목 벤 재장수가 되었느냐 하난

날로 일어 금상입네다, 들로 일어 금상입네다

아방무유 어멍무유 솟아나난 하늘이 아버지고 지에가 어머니가 되어전, 한 일곱 살
나난 울이 크고 녀이 큰 장수가 되언, 저 한말을 다 곱았수게 자기 한 말을.

경 해낸 이제 허난 피난을 오라네 하르바님 찾안 현공일공 흐젠 오랐수게 영 일르
난

그러면 너는 뭘 음식을 먹겠느냐 하난 하르바님은 무슨 음식을 잡습니까 하난.

우리는 맑은 조상이 되어지난 백돌레나 백시리나 청감주나 계란안주를 먹느니라 하
난.

경허민 백조님은 무슨 음식을 잡습니까 하난 우리는 칼로 베여 췌내나난 춤실베 전
정배라는 것은 요만이 한 거우다. 이런 걸 헤 그네 본향에 딱 올립니다 백주애기씨
나시. 그걸 해그네 여섯 개에 딱 올립니다. 칼로 베여 췌내나난 춤실베어 전정배나
백돌레나 백시리나 암퇘 잡아안 안전지나 계랄 안주 먹느니라.

금상한집은 뭘 먹엄디 하난

천조하르바님이 금상한집은 그럼 뭘 먹엄디 하난

나는 술도 전 동일 먹읍네다. 안주도 전머릴 먹읍니다 하난

투 더럽덴 나가렌 막 야단을 했수게. 야단을 하난 포따리 썬 문도에 나사난 백조님
흐는말이,

미혹한 재장수님아 한일 알고 뒷일 모르는 금상이로구나, 전일 먹던 음식을 버려두
고 하르바님 잡수는 양 먹쿠덴 일릅소서 영 허난,

그게 돌아선 하는 말이

전일 먹던 음식을 버려동 하르바님광 하르바님 잡수는 양 먹쿠다 영 허난

네 그리허거들랑 팔죽 쑤영 목괘이라.

팔죽 쑤영 목괘이라는 옛날엔 팔죽을 썬 올려났젠 합니다. 이제도 김녕더렌 죽 쑤
영 올립니까, 이랜 설러부러도 예.

팔죽 쑤영 목괘이라 세계이라. 청감주로 몸 목욕하라 즈수지로 입수회수하라

게난 옛날엔 팔죽 본풀이할 때 경 험니다

옛날엔 팔죽도 썬 놔났수다마는 이젠 현대가 되어부난 팔죽 못 썬 올림썬다
순간계랑 초감제 험씨예 해그네, 우린 본풀이할 때 경 험니다. 영 행 하나 팔죽 썬
목궤고 청감주로 목욕하고 주수지로 입수 회수형영 현공일공 허랜 해썬게.

영허난 경 허연 연 석더레 살아가난 피골이 상식이 되언 죽을 사경이 돼서 마썬.

흐를 날은 백주님이 하는 말이 금상 한집님아 어찌해서 피골이 상식이 되언 죽을
스경이 되었수과 이르난

전에 먹던 음식을 못 먹으난 피골이 상식이 된 죽을 사경이 되었썬다 허난

이제 백주님이 천조하르바님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뭇은 조상이 되어지난 우린
맑은 조상이 되어지난 브름 위로 상을 받안 브름 위로 지도 타 불거들랑 너는 뒤떨어
졌 당 마흔여덟 상단골도 돌아보고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 열여덟 백성 수
안당골에 돌아뵈, 신랑집이는 등봉고소를 받고 신부집이는 남봉고소를 말머리 받아먹
영 살고, 또 문전 철갈이할 때 또 이제 상을 받으렝 해썬다.

문전철같이 겐 물비리도 불러주라, 쟁비리, 너벅시, 흥나물, 버젓승, 피부병을 다 불
러져마썬, 경 허민 잔치하는 집이는 신랑 집이는 등봉고소를 하고 신부집이는 남봉고
소를 행 잔치 날 고소를 합니다.

문전제 할 때도 삼년에 한번 금상한집을 예를 들어 오십만원짜리를 조상신디 바쳐
놔 두민 벌써 몇배를 그냥 조상님이 먹으면 먹은 값으로 몇배를 내세우지 마썬.

예를들어 오십만원짜리민 오천만원을 내사주고, 양 농사도 잘뵈고 아이들 뭔가 어
디 직장하는 것도 안뵈영허민 조상을 대접하민 직장도 하고, 또 인연 못 만난 사람도
조상을 대접하면 인연도 만나고 경험니다.

첻진궁 좌정하기는 어딜로 하민 상서화리 요디 ‘아꼐왓’ 오다보민 큰 밭이 삼거리
에 큰 풍낭 막 큰 풍낭 있지 았읍데가, 바로 그 앞이가 ‘아꼐왓’이우다. 그디가 ‘더력
광산칩’ 이라 마썬. 더력 광산. 게난 첻진궁 좌정하기는 상서화리 아꼐낭 더력광산 집
으로부터 들어산 상을 받게 해여수다.

영 해그네 본풀이 해여그네 그걸로 끝 해여그네 경 행 난산국을 풀었썬다 본산국을
풀었썬다 해그네 이젠 다 조상들 먹읍센 해연 다 잔을 제핍니다.

고기 즈질게 썰어그네 우리 그거 할 땐, 고기를 상 받는 세반 열두백 문딱 물도 한
점 아니 떨어 놔 그네, 상반 세반을 하고 또 이런 푸다시 해난딘 네반을 놓고 양 바
당에 보내젠 허민. 경 허곡 또 초반이영 한건 알반으로 해그네 열두반 놓고마썬 경
하나 어떤 심방들은 경 굴습니다, 또 열두 삼촌나시영도 고릅주, 겐디 우린 열두삼촌
나시영은 안 굴습니다. 우린 기자 금상한집 상반 설반 아홉반 이주만 열두설반 걸어
올립네다, 영 해그네 예.

경 행 우리가 본풀이를 합니다게. 아꼐왓 더력 광산 김씨집으로부터 첻진궁 좌정해
였수다 영 험네다

막 몸에 피부병 고빨 감기 설사 오바이트 배트럼징 베라벨 병을 다 해여그네, 어디
가 그네 병원 강 약 사도 아니들어 그네, 그 조상 대접하면 당장 좋습니다.

금상한집. 금상한집은 예 병 빨리 주기도 쉽고 빨리 낫게 하기도 쉬웁니다게.